

'약속의 탑' 발원 지키며 나누는 삶 실천

부산 원광사 장학재단 설립

이웃을 위한 회향을 다짐하며 약속의 탑을 세운 부산 원광사(주지 지광)가 장학재단 설립을 앞두고 제 1회 전달식을 개최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1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해온 원광사는 재단법인 '원광장학회(가칭)' 설립을 위해 기금 3억원과 가용자금 2000만원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 3월 8일 '제1회 재단법인 원광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학생 4명에게 각 200만원, 중고등학생 12명에게는 각 50만 원을 지급 총 14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지광 스님은 "2008년부터 계속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재단법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장학금 전달을 한 건 처음이다. 이 모두가 신도들과 함께 나눔의 원력을 세운 덕분이다. 현재 우리 사찰 신도들은 봉축 연등, 기도비, 천도재 등을 통해 장학회 설립을 위해 심시일만 마음을 모으고 있다. 재단법인은 3월 중으로 허가가 날 예정인데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원광사는 인재발사와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을 약속하며 지난해 11월 '혜명자비

약속'을 제막해 주목받았다. 지광 스님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해 부처님의 혜명을 전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전해 자비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원광사 신도들의 발원으로 세워진 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단법인 장학회 설립은 이런 원력이 바탕이 되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한다. 장학재단은 2017년 발족을 계

2008년부터 총 1억여원 인제물사

3월 8일 '제1회 장학금 전달식' 가저

약속탑 제막하며 나눔의지 다져

15년간 불우이웃 위한 쌀 보시도

획했으나 이보다 2년 앞당겨 2015년 설립이 이루어지게 된 것. 원광사 부신도회장 윤화자(63) 씨는 "매사에 철저히 절약하는 삶을 실천하며 나눔을 행하는 스님을 보며 존경심과 환희심이 일어난다. 스님과 함께 실천 수행을 하게 되어 행복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광 스님은 14년간 쌀나눔도 이어오고



이웃을 위한 회향을 다짐하며 '혜명자비약속탑'을 세운 부산 원광사(주지 지광)가 장학재단 설립을 기념하며 3월 8일 제 1회 전달식을 가졌다.

있다. 백중기도 후 쌀과 동참금 전액을 모아 불우이웃을 위한 쌀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10kg 100포를 금정구청에 전달했지만 점점 그 양을 늘려 작년에는 10kg 2200포를 동래구 금정구 중구 영도구 등 부산 각 구청과 장애인협회, 복지기관 등에 전달했다.

박용하 원광사 신도회장은 "아무리 어려워도 장학금 지급, 쌀 전달 등은 그 양이 줄어드는 법이 없었다. 이 모두가 자비나눔을

위한 스님의 원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신도들도 그 뜻을 함께 이어나가고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나누는 삶의 보람을 이야기했다.

앞으로 원광사는 장학금지원과 쌀나눔 외에도 군포교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포교를 위해 방콕, 방글라데시 등 난민국가를 위한 '우물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범어사, 제14교구신도회 창립 법회 개최

3월 19일 범어사서... 사부대중 200여 명 참석

금정총림 범어사의 본·말사 전체 신도를 대표하는 대의 기구 '제14교구 신도회'가 창립됐다.

범어사(주지 수불)는 3월 19일 '제14교구 신도회' 창립법회를 범어사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을 비롯한 각 수발사 주지 스님 및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경과보고, 14교구신도회 이윤회 회장(태극정·수한기업 대표) 임명장 수여, 포교원장 지원 스님 치사,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창립법회를 시작으로 '제14교구 신도회'는 본사와 말사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

다. 이번 창립은 200회 중앙총회에서 개정한 사찰 신도회와 교구신도회를 기초로 한 신도법에 발맞춘 것이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200여개의 말사 신도회로 구성된 14교구신도회가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신도회 창립으로 사찰 신도회 교류와 조직정비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불교중흥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14교구신도회가 금정 총림 본·말사 운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은 물론 신심 깊은 불자들의 구심점이 되어 자랑스러운 부산의 불교문화를 국내외로 널리 홍보 해줄 것을 믿는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범어사는 3월 19일 '제14교구 신도회' 창립법회를 가졌다. 이윤회 회장 임명장 수여 장면.

"통도사 학춤 명맥 이어 가겠습니다"

백성 스님 3월 13일 학춤 전승 강의 열어

통도사 평생교육원이 3월 13일 통도사 서운암에서 '백성 스님의 학춤 강의'를 마련했다.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이번 강의에서 백성 스님은 무용과 작법, 통도사 학춤의 역사, 사찰 학춤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은 "학은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물이다. 아마타경에 따르면 반야용선(般若龍船)처럼 망자들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동물이며 부처님의 화현이다. 하지만 일제시대 불교문화 말살정책으로 학춤이 위기를 맞았고 80여년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박미나(49)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에 참석했는데 들

고 나니 학춤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달라졌다. 앞으로 학춤이 많이 알려져 소중한 불교문화가 보존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통도사 학춤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오후 2시 30분에는 스님들을 위한 강의로 마련된다.

백성 스님은 월하 스님을 은사로 1981년 출가해 통도사 학춤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속가의 증조부와 조부, 아버지 4대에 걸쳐 춤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아버지인 김덕명(90)씨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 '한량무' 보유자이며 '양산학춤' 기능보유자다. 4대를 이어 활동을 하고 있는 백성 스님은 통도사 사찰 학춤의 유일한 전승자다.

하성미 기자



학춤의 전승자 백성 스님이 3월 13일 불자들에게 학춤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념장학회, 경주 동국대에 장학금 전달

일념장학회(이사장 이영채)는 3월 13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관 3층 회의실에서 2015학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10명의 학생에게 각 100만원씩 총 1천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일념장학회 이영채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장학생들은 학업에 더욱 매진하고 사회와 불교를 위해 부단히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일념장학회 장학금의

깊은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겨 부처님의 뜻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인재가 되어 달라"고 전했다.

1995년 설립된 일념장학회 장학재단은 승가대학 및 총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지난 2009년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내에도 일념장학회를 설립하고 2010년부터 총 77명의 학생에게 총 7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하성미 기자



일념장학회가 3월 13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2015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경주 석불사, 대원본존전 준공법회

대원불교 원효종 경주 석불사(주지 인각)가 3월 14일 대원본존전 준공 법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총학연구원장 철우 스님, 이도호 경상북도의원, 김병도 경주시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인각 스님은 "대원본존전 본당을 창립하게 되어 기쁘다. 불자들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곳이 좋은 인연을 맺는 공간이 되었으면



석불사 대원본존 준공 법회

한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053)634-8803

손문철 대구지사장

4월 25일 제13회 서운암 들꽃 축제 열어

통도사 서운암(주지 동진)에 피어난 들꽃들이 대중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통도사 서운암은 4월 25일 '제13회 서운암 들꽃 축제'를 마련한다.

이날 서운암 일대 20만㎡는 금강화 할미꽃, 초롱꽃 등 야생 들꽃 등 100여종의 들꽃들이 만개, 절정에 이를 예정이다.

서운암 들꽃 축제는 2000년 4월 '서운암 들꽃제'가 생기고 야생화 1만 그루를 심은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2년 4월

부터 본격적으로 축제를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운암 무위선원에서는 전국 문학인꽃축제운영위원회(위원장 정영자)가 주최하는 '제5회 전국문학인꽃축제'도 함께 연다.

전국의 문인 2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문학인 꽃축제에는 문학 강연 및 시낭송, 깃발시화전, 시화집 발간 등이 마련된다. (055)382-7094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 CEO 컨퍼런스 개강법회

한국불교의 발전 방안과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2기 부산 불교 CEO 컨퍼런스'가 개강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회)의 주최로 3월 19일 부산 코모도 호텔 희락정에서 개최된 이번 개강 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 부산불교

연합신도회 이윤회 회장 및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불교 CEO 컨퍼런스는 3월 말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4월 9일부터 1년간 매주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저녁 6시30분에 진행된다. 첫 강의를 부산양정 불교회관에서 열린다.

하성미 기자

JJUN Heating System Module

“**쫐**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 온수난방 SYSTEM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입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강남 : 010-5097-8291	익산 : 010-6610-2337	광주 : 010-6890-0365
울산 : 010-4597-5577	양산 : 010-6294-6126	진주 : 010-3583-7139
평창 : 010-6433-8612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제주도 : 010-3000-1945		

사찰 연등 및 전선(별명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함초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식)

노형(도면지) 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엔벨 용품

일지사형 S형 T분리형

LED하형 LED홀타형 건전지 초

▶빙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